

## 開 會 辭

李 相 禹

(西江大 東亞研究所長)

작년 6월, 우리가 금년과 같은 主題인 “아세아에서의 民主主義 受容 : 葛藤과 調和”를 내어 걸고 第3次 韓中日 政治文化比較 會議를 연 직후부터 韓國社會는 民主化의 거센 물결속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6.29의 分水嶺’을 넘은 것입니다. 後世에 누가 이 轉機를 어떠한 視角에서 分析하고 어떤 歷史的 意義를 부여할지 모르겠으나 皮相의인 관찰만으로도 韓國民主主義 發展史에 있어서는 하나의 매듭을 이룬다는 것은 다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民主化의 외침은 우리 社會의 基本構造를 뒤흔드는 爆音으로 增幅되어 既存 制度, 秩序, 價値意識, 生活樣式 등에 대한 엄청난 挑戰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의 實踐을 國是로 하는 國民의 合意에 의해 大韓民國을 세운 이래 우리 國民들은 民主主義를 定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傾注 하였습니다. 때로는 피흘리는 鬪爭도 벌렸고 때로는 全國的 저항운동도 전개했었습니다. 또한 社會 구석구석에서 制度의 民主化, 價値의 民主化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40년에 걸친 努力 끝에 오늘 우리는 未洽하나마 어느 정도 자리잡은 民主社會를 건설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개해 온 民主化 努力過程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問題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既存의 制度和 새로운 民主主義 制度와의 衝突, 既存價値體系와 새 價値體系

와의 不調和, 傳統 政治文化와 새 民主主義 政治文化와의 葛藤으로 社會 구석구석에서 混亂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渦中에서 우리는 가장 큰 混亂의 源泉이 西洋에서 發展되어 온 民主主義에 대한 不完全한 認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斷片的으로 受容된 制度와 價値가 民主主義의 核心精神을 바로 理解하는 데 不足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日本의 民主化過程에 있어서나 中國의 民主主義 受容過程에서도 비슷한 事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文化圈을 이루는 韓國, 中國, 日本 등 세 나라에서의 民主主義 受容過程을 比較하면서 서로의 經驗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機會를 가지려고 이 會議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來日을 만들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傳統文化와 調和를 이루는 體質에 맞는 亞細亞 民主主義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價値葛藤, 制度葛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傳統文化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民主主義를 創出하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可能的한 것인지는 銳意分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分野의 碩學들을 모셔서 이러한 學術會議를 여는 것입니다.

이 會議는 必要하다면 한 두해 더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會議에서 펼쳐진 귀한 見解들을 冊으로 묶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렵니다.

이 뜻있는 모임이 可能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金聖鎭會長을 비롯한 韓國國際文化協會 여러분들의 理解와 協調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會議趣旨를 理解하시고 水陸萬里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參加하셔서 貴重한 論文을 發表해 주시기로 한 外國學者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謝意를 表합니다. 學術討論은 모임 자체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닙니다. 平素 깊은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진지한 討論을 펴 주실때만 成功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 會議에 參與하여 주시는 國內 여러 學者님들의 熱意에 심심한 感謝의 뜻을 포함합니다  
感謝합니다.